

정론

우 리 의 미 래 를 자 랑 하 자

시대와 역사가 놀라운 시선으로 우리 대학생을 바라보고있다.

교정에 소박하게 펼쳐지던 대학생들의 예술소공연을 당중앙위원회 감사를 받고 수도의 유명한 만수대에 예술극장무대에까지 올라 만수대의 축하를 받고있다. 어제날 시대의 선구자들인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 로동계급의 예술소조들이 온 나라를 들쭉날쭉하게 하며 오르던 무대에 오늘은 대학생들이 올라갔다.

어이하여 평범하고 나이던 대학생들의 예술소공연을 대학가에서 위대한 선군명장의 축복에 떠날때 영광과 행복의 최고봉에 오르는것인가.

조국을 위하여 바칠것이란 아직은 성적중 하나뿐인 그들, 조국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는것이 전부인 대학생들에게 우리 당은 왜 가장 훌륭한 예술극장의 무대를 이김없이 내어주는것이며 온 나라 인민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주는것인가.

1

대학생!

수백만 지식인대군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에 대학생과 인연을 맺고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뜻깊은 대학예술소공공연의 첫 판중이 되어 축하의 박수를 보내던 당과 군대, 국가의 간부들도 어제날의 대학생들이며 출연자들에게 진정어린 꽃다발을 안겨주며 제 자신들인듯 대견스럽게 등을 두드려주던 관람자들도 대학생의 학부형들이다. 사회와 가정과 깊은 현연으로 연결되어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온 나라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다.

선군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떤 무부와 리상을 안고있는가, 그들의 정신상태와 도덕품은 과연 어떠한가?

대학생의 세계는 교정의 창문으로만 들여다볼수 있는것이 아니다. 예술소조는 해당 집단의 사상정신상태와 문화도덕수준을 가장 생동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다. 예술소공공연무대 하나를 통해서도 그 집단의 세계를 충분히 알수 있고 지어 한 시대, 한 세대를 통틀어 내다볼수도 있다. 이번 공연이 바로 그렇다.

시야가기와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를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품고있는 포부와 리상이 가슴울러히 안겨오고 신동이야기 《활승의 신념》을 들으면 《항일빨치산항일의 희생가》의 글줄을 피땀은 젊은 심장마다 새겨가는 대학생들의 불같은 눈빛들이 선히 떠오른다.

때담 《우리의 도덕》이나 선동곡 《15g》을 보면 온갖 어지러운 잡것들이 발붙일 틈 없는 대학생들의 건전한고 순결한 생활의 진면모가 방불하게 안겨오고 청담세계의 주인공이 될 청춘들의 야심만만한 배짱이 차넘치는 시와 합창 《돌과하라 최첨단을》은 이 밤도 꺼질줄 모르는 교정의 불같은 창문들을 그려보게 한다.

공연작품들도 우리 대학살이 단정하고 절도있는 품위와 리상이의 도와고 상한 도덕품은 또 얼마나 마음호뜻하게 해주는가.

결코 대학생들의 모습만을 보게 되는 무대가 아니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새 주인공들, 선군조선의 새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언제나 혁명인재양성사업을 끈기있게 하여나아가야 하며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어려운 과업이 나설수록 이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얼골이라면 대학생은 그 얼골의 눈동자와 같다. 청년들중에서도 지성과 문명의 첨단을 지향하는 대학생정단은 자기의 뚜렷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있다. 과학을 탐구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사상에 민감하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하나 보기도 스쳐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분석평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세운다. 남달리 민감하고 주견이 강한 대학생들이 시대의 유행과 사회적경조의 앞장에 선 청년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민족간부와 기술인재의 후비력량인 대학생은 강성대국시대의 대표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새 세대들을 노련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 지금 대학생의 준비정도는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미래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등성적증보다 더 귀중한 재부는 우리의 강성대국세대의 대표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새 세대들을 노련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 지금 대학생의 준비정도는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미래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등성적증보다 더 귀중한 재부는 우리의 강성대국세대의 대표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새 세대들을 노련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 지금 대학생의 준비정도는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미래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등성적증보다 더 귀중한 재부는 우리의 강성대국세대의 대표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대학생들의 공연을 보면서 우리를 가장 크게 한것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선군조선의 다음대 최첨단세대를 개혁해야 할 대학생들의 지지도 귀중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등성적증보다 더 귀중한 재부는 우리의 강성대국세대의 대표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새 세대들을 노련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 지금 대학생의 준비정도는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미래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등성적증보다 더 귀중한 재부는 우리의 강성대국세대의 대표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대학이 있고 대학마다 제 나름의 전통과 자랑이 있다. 《정의, 진리!》의 구호를 학업의 넘으로 삼는 대학도 있고 《전인류를 위하여!》라는 주장을 자기의 정신으로 여기는 대학도 있으며 오랜 역사를 거머쥔 규모와 교육환경, 특출한 인재의 배출을 자랑으로 삼는 대학들도 있다.

우리의 대학들은 역사는 비록 길지 않지만 그 어느 나라 대학들에 비길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대학마다 전공하는 학업들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의 모든 대학생들이 하나의 정기를 자기의 전통으로 계승해오고있다. 교원들은 강의를 시작하기전에,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객상을 들려주지 않사, 아버지 아들들 첫 대학등록일에 떠나보내면서 심장마다 새겨주는 진리가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대학생들의 제일생명이야!
여기에 조선의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품모가 다 비껴있다. 바로 이것을 자로 하여 우리는 대학생의 실력, 대학생의 인격, 대학생의 도덕을 평가한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이 구호를 헤쳐며 공화국의 대학생들은 건국의 선봉에 섰고 전선전원으로서 제일먼저 자기 이름을 써넣었으며 제대미우에서 일떠서는 사회주의조국의 기둥이 되었다. 오직 혁명을 위하여 배워려는 일념을 안고 우리의 대학생들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당을 위한 지식, 조국과 인민에게 필요한 지식을 두뇌에 새겨넣었으며 당과

조국의 부름이란편,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던 지식뿐 아니라 피와 땀,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다.

《E. C.》의 열혈투사들이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그 본보기를 창조하신 이 빛나는 전통은 건국의 세대와 당의 기조속시시기의 세대에도 굳건히 이어졌고 오늘은 조선혁명의 4세, 5세의 골간을 이룰 선군시대 대학생들에게 바름이 넘겨졌다.
단 한개의 대학도 없던 이 나라에 인민의 첫 대학을 임페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러 우리의 첫 대학생들이 다녔던 맹세, 60여년세월 조선의 대학가들에 깊고도 억세게 뿌리를 내리고 역사의 그 어떤 파동이 몰아쳐도 언제 한번 흔들려본적도 흐려본적도 없는 투철한 사상과 신념, 고결한 정신세계가 선군시대 새 세대 대학생들의 모습에 비껴있어야 우리의 마음 그처럼 뜨겁고 자랑스러웠어야 아니었던가.

대학생은 지지도 높아 하지만 무엇보다 사상이 투철해야 한다. 뿌리가 든든치 못한 나무는 잔풍에도 흔들려듯이 사상이 비틀어지고 정신이 흐르면 대학생은 이 바람, 저 바람에도 쉽게 지식을 파는 돈의 노예로, 혁명의 준엄한 시기가 오면 반혁명들의 모습에 비껴있어야 우리의 마음 그처럼 뜨겁고 자랑스러웠어야 아니었던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동유럽의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 학자들은 우리 대학생들의 건전한 정신도덕적품모에 탄복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 나라 대학생들은 혁명이라는것을 모르며 그저 돈밖에 아는것이 없다고 개탄하였었다. 바로 그런 대학생들이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데 앞장에 섰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생들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를 거처졌지만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더 엄격하고 더 아름다워졌다. 당의 후비도와 존경히 준비된 마오 선군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우리 당은 오늘 가장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다.

사회주의근위대!
노래를 불러도 수령의 노래, 예국의 노래, 혁명가곡노래를 부르고 책을 읽어도 빨치산의 회상가를 먼저 펼치는 대학생들, 앞날의 리상을 설계해도 수령의 뜻을 실현할 충정의 포부를 설계하고 전공을 택해도 조국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될 길을 선택하는 대학생들, 옷차림과 머리단장, 레의도덕에서도 사회주의품, 사회주의의미를 좋아하는 대학생들...

우리의 대학가에 펼쳐진 당과 수령의 대학생의 세계는 사회주의청년의 세계, 사회주의미래의 세계이다.
나라에서 배워준 지식과 재능으로 제살 공리만 하는 개인인생관을 경멸하며 부르조이날라리품, 자본주의의 《황기로 온 바람》을 준절히 타파하는 건결하고 순결하고 열정적인 우리 대학생들의 정신세계야말로 조국과 인민이 마음놓고 미래를 맡길수 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리진 이 야인가.

건전한 정신과 품만한 지식을 갖춘 대학생정단은 조국건설의 가장 큰 국력이 될 것이다. 강성대국의 새 시대 혁명인재들이 사회주의근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된 이 하나의 자랑거리로도 우리는 세계에 대해 당당히 말할수 있다. 예제는 인공지구위성과 CNC를 두고 강성대국의 패력이 보인다고 노래했던 우리는 오늘날 평범한 대학생들의 예술소공연을 놓고 다시금 멋있게, 긍지높이 더 큰 목소리로 세계에 대해 웅언다.
강성대국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높은 과학기

술발전수준과 풍요한 자원을 국력의 밑천으로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을 마음만 먹으면 순간에 창조해낼수 있는 가장 큰 국력, 당과 국가가 마음놓고 배일을 맡길만한 한 혁명인재의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이 재부를 부러워하고있다.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인제문제를 국사중의 국사로 논하고있다. 어제날 자연부원쟁탈을 위하여 명토쟁탈의 각축전을 벌리던 나라들이 지금은 인제쟁탈의 치열한 경쟁전을 벌리고있다.

레이이 아니라 현재를 중시하고 인제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주의의 실용주의적사고방식으로써는 대학생이란 필요하면 아무때든 돈으로 살수 있는 독점자본의 치부수단, 《본별이용상품권》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조선에서는 대학생들이 혁명인재후비, 나라의 보배라는 값높은 부부속에 떠날때리고있다. 세상친지 어디에 우리 대학생들처럼 당과 수령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속에 국가의 최고급급장에서 예술소공공연무대를 펼치고 온 나라 인민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과연 있는가.

이렇듯 고마운 당의 품, 사회주의제도의 품에서 자란 우리의 대학생들이 수령과 당에 드리는 충가를 부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고 끝없는 열정으로 맹세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제의 세계화》의 꾀에나 우리의 청년대학생들은 《지식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선의 대학생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고 멋있게 대답한다.

이번 대학예술소공공연이아말로 선군조선의 대학생들이 사회주의조국으로 토포니 준비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전과도 같다. 이는 곧 위대한 장대사상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이며 강성대국미래의 승리이다.
사회주의는 오늘뿐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2

우리의 대학가에 선군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술도 전투이고 규율도 인민군대적이며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어배려는 물론 지어 박수를 치는것도 병사처럼 절도있고 예기있다. 예술소공공연도 인민군대의 증대예술소공공연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조선의 대학생정신은 곧 혁명적근위정신이며 대학생문화는 군인문화이다. 이것이 이번 대학예술소공공연을 통하여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대학가에 차넘치는 혁명적근위정신, 그 거센 열풍의 중심에는 정예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이끌어주시는 혁명적근위정신, 인공지구위성과 CNC를 두고 강성대국의 패력이 보인다고 노래했던 우리는 오늘날 평범한 대학생들의 예술소공공연을 놓고 다시금 멋있게, 긍지높이 더 큰 목소리로 세계에 대해 웅언다.
강성대국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높은 과학기

우리 당은 세상에 못해될 일이 없다. 지금 어느 나라 대학가에서나 제국주의의가 커지고있는 부르조이바람이 어지럽게 몰아치고있다. 대학생들이 개인의 리기와 향락만을 아는 정신적기행아, 지식의 매춘부, 자본의 노예로 되고있다. 미래가 병들고있다.

원수들은 우리 혁명의 4세, 5세들중에서도 특히 레이의 민족간부이며 기술인재로 될 대학생들을 기본과적으로 정하고 그들을 향해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도모략전을 벌리고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과 2세, 3세들의 정신을 흔들지 못한 적들은 실사 오늘을 안더라도 레이의 필수 있으며 이 땅에 강성대국이 일떠서도 그 핵심부대만 남겨내면 사회주의제도를 꾸꾸러뜨릴수 있다는 음흉한 야망 밑에 대학생들을 노리고있다.

현시기 제도수호전 못지 않게 심각한것은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의 정신과 넋을 지키기 위한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사상대결전이다. 그것은 우리의 제도, 우리의 강성대국, 우리의 미래를 수호하는 또 하나의 치열한 총포성없는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이 계급전쟁의 전역에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안겨준 선군의 보검으로 원수들의 어리석은 망상을 단호히 짓밟아버리고있다.

대학예술소공공연을 남다른 흥분속에 관람한 청년동맹원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선군정치의 위력과 생활력을 지금처럼 사무치게 절감해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선 선군으로 혁명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청년, 사회주의대학생의 대우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 대학의 교정같이 잇닿아있다고 절절히 헤치는 대학예술소조원들의 목소리를 무심히 들을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의 길에서 찾으신 대학생들은 그 열매였던가. 지난 한해 동안에만도 대학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현치지도는 큰 10차례에 달한다.

고난의 그 나날에 풍우유를 싣고 아이들에게로 달려온 《왕자》이기와 같은 전설같은 사랑의 사사자가 우리의 대학가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이러한 때 대학생들에게 매일 어김없이 차려지는 고기김밥에 갖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듣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쪽잡과 꿩기밥》생각이 눈시를 적시지 않았으며 과연 그렇다.

분초를 쫓아가시는 강행군현치지도경에서도 대학생들의 예술소공공연과 체육공연을 보아주시며 응심깊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머리단장과 옷차림, 언어배열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살피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나라사정이 어려워도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을 몇개나 건설하고도 남을 큰 품을 아낌없이 들이시어 희한한 건자도서만, 수영관들을 꾸러주시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스승, 위대한 학부형이 되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품속에서 선군시대의 대학생공화국영웅, 대학생박사들이 태어나고 수십만 대학생들이 선군혁명의 전위기술인원 인민군군인들과 어깨나란히 사회주의근위대의 대오속에 들어설수 있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대학생은 있다. 인류의 문명발전의 산물인 대학의 력사도 천년을 넘긴만 세계정치사의 그 어느 페이지에도 대학생문제를 논한것이없었다.

대학을 조국과 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민족간부로 내세우고 그들의 교양양성제를 혁명의 장래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며 나라가 학부형이 되어 대학생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장래까지도 책임져주는 당과 국가는 오직 우리의 조신로동당, 우리의 사회주의조국뿐이다.

국가가 창건되기전에 벌써 인민의 첫 대학이 일떠서던 력사의 그 나날로부터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대학생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이 땅에 수백수천만의 혁명인재대우대가 굵어지게 하였으며 빈터우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희망찬 변명의 활로로 이끌어왔다.

수령의 국가건설업적들의 가장 큰 공적은 나라를 인제대국으로 만드는것이다. 우리 조국을 세상에 다시 없을 인제대국으로 전변시켜주시고 그 휘황찬란한 전망까지 만만하게로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야말로 민족사에 천만년 길이 빛날 애국업적임을 력사와 현실은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이 나라 대학교정마다에 어려웠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대학생들은 꼭꼭 노래한다. 민주조선의 첫 대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오늘날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류급대학으로 일떠세워주려고계시는 백두산3대위인의 숭고한 후대법,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찌 봉산산언덕에만 어려웠으며.

일출수 없는 지난 2월 어버이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펼쳐진 대학생들의 예술소공공연무대는 우리 당의 후대법, 청년중시정책의 절정에서 활짝 피어난 한결같이 꽃이었다. 매일의 조전은 그 꽃처럼 신선하고 아름다우려라. 매일의 우리 행복은 그 꽃처럼 꽃피고 창창하려라!

선군조선의 행복한 대학생들이여,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을 받은 오늘의 영광을 심장같이 소중히 간직하라. 그날에 장군님앞에서 다진 맹세를 영원히 잊지 말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친필을 선군시대 대학생의 좌우명으로 심장에 새기자.

대학생의 오늘은 강성대국의 패일이야. 대학생이 굳건하면 사회주의가 굳건하고 대학생이 아름다우면 조국의 패일이 아름다고 대학생이 강행군하면 조국이 더 빨리 내달린다. 구만다시 돌아오지 않을 창시정치의 한호초로, 한시간한시간을 갖기 위해 보내어 후날 새로운 인공지구위성, CNC의 주인공, 세계적명장의 창작자로 우리 장군님앞에서 어느 대학졸업생입니다라고 멋있게 대답할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대학문을 나서자.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 김일성조선의 새 세기를 민족사적 가장 위대한 변명의 백년대기로 빛내이자!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환희로운 확신으로 가슴을 울리는 이 시각,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자! 당과 수령의 뜻을 우리 가슴에 새겨라! 혁명선열들이 단두대에 올라서면서, 원수들의 화구를 향하여 용탄으로 날아들면서 꿰뚫은 《미래를 사랑하라!》의 메리타가 가슴에 파고든다.

사람들이여, 미래를 긍지높이 자랑하려거든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미래를 사랑하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부강번영할 선군의 사회주의조국을 물려주자!
미래를 위하여 우리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자!
리 경 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가

별가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별가리아공화국 대통령 게오르기 빠르바노브각하
나는 별가리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3월 3일 평 양



조국의 푸른 숲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고있다. 신 충혁 적을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리당 리강위원회에서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위대성교양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치지도 기념보고회

만포시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치지도 기념보고회가 만포시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서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만포시당위원회 책임인비 김명진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2월말 만포시에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 하시며 나이강을 활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만포시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들과 로동자합숙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기업관리를 짜고들며 생산을 늘이고있는데 대하여 탄복을 표시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부강조

국건설에서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만포시에 들리시어 시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하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고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된 만포시를 돌아보시면서 강계정신의 창조자로서 자신도 인민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치말씀은 만포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도시경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게 한 강령적지침으

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치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1년간 생산과 건설, 도시경영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만포시공장에서선 원료와 자체부품을 앞세워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신단들을 적극 발하여 로동자들에게 위생문 화적인 작업환경을 마련하여주었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만포시에서 민족음식의 가치를 높였으며 능력이든 저장장르와 강방이가공설비를 갖추어놓고 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데 대

하여 말하였다. 살림집들의 개건보수와 올라 리공사, 새로운 민속공원건설 등 도시경영사업을 짜고들며 시를 사회주의선경도시로 더 잘 꾸리였으며 선경도시와 도로건설을 내밀어 국토관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정공포와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새해공포공정들과 당중앙위 원회, 당중앙시위원회 공동구호를 만들고 만포시공장을 비롯한 지방공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주체법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앞설것에 지어 능

품소 배워주신 가공방법

주제52 (1963)년 6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먹이시기 위하여 품소 닭도 길러보시고 오리공장도 건설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그 무렵 우리 나라에서는 가공품들이 일떠서고 많은 고기와 알들이 생산되고있었다. 그런데 음식물 제대로 가공하지 못하여 많은 오리알들을 썩어가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품소를 길러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별 일을 다 해보아야 합니다라고 하

시며 하던 일을 계속하시였다. 언제나 이인위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꾼은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소를 받고 그이께서는 그것들 사이에 그 일꾼은 절군 닭알과 오리알을 맛보게 되었다. 만면에 밝은 미소를 띠고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맛이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그가 별다른 라고 말씀드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이것이 전변에

소금물에 담근것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가공부서 일꾼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는데있었다. 우리 수령님처럼 이렇듯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실천과 로고를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는가. 인민을 위해서라면 별일을 다 해보아야 한다시며 위대한 한생의 매 순간순간을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 따라 만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일해 나갈 신념의 맹세가 천만군민의 가슴속에서 새처럼 용솟음치고있다. 분사기자 백영 III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상화하라!

(공동구호에서)

동력기지에 내려치는 총공세의 기상

굴지의 전력생산기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총공세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고있다.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업과 공동구호의 전투적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전력생산을 더욱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다. 나시오고있다.」

북창로동제급의 심장속에 하나로 고동치는 지함이 있다.

북창이 쫓아온 나라는 나라는 굶고 북창의 술집이 더욱 빨리다. 대고조의 박동이 더욱 빨리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신 것에 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전력생산실적으로 보답하자!

책임일군으로부터 내리온 운전공들에게 이르러까지 모두가 이른 드논은 결의안고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지난해 8월 쯤는듯 한 무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제급

위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에하는 장군님, 끝없는 애국헌신으로 이 땅에 대한 헌신, 대박의 전성기를 안아오시고도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 없이도 북창의 로동제급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라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사랑에 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이룬은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영광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이곳 로동제급은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는 데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하기에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4대선행부분이 높은 생산성장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들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나가자고 한 김철로동제급의 편지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 전력생산목표를 기어이 접목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벌여나가고있다.

세계의 첫 전투가 시작되던 때였다. 련계가 없는 강주위로 하여 전력생산에 단반이 조성되었다. 화차들에 실려온

석탄이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기계수단을 틀어대어도 부리우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만일 하차시간이 늦어진다면 보이러들에 석탄이 원만히 공급되지 못하여 전력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새해공동사업을 받아안고 모두가 결사판혈의 맹세로 가슴깊이던 그 시각,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이 이렇게 호소하였다.

「자, 우리 세대의 첫 석탄화차를 전투적으로 해봅시다. 발전설비마다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올려놓는것으로 온 나라 인민들에게 북창로동제급의 인사를 보내줍시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기업소일군들이 남면적 화차우로 뛰어올랐다. 보장부분과 보수부분의 로동제급이 손에손에 공평이와 함미를 들고 떨쳐나섰다. 기업소참모부의 치밀한 작전밑에 직장부화차들을 차지하고 석탄을 부리우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차지장앞에는 지장통에 매여드는 석탄덩이들을 꺼내려야 할 임무가 나 있었다. 언 석탄덩이들이 지장통에서 벨트콘베어로 향한 출구를 막아놓았건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취해졌지만 오랜 시간 허공에 매달리

다실이 하여 작업을 한다는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직장총공급들이 선창으로 지장통으로 뛰어들어 얼어든 석탄덩이들을 꺼내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달아오른 몸을 식히느라 땀을 벗어제끼고 함미와 공평이를 휘둘렀다.

어지간히 시간이 흘러 누구나 기운이 진해가고있을 때 직장장전영철동무가 목소리가 울었다.

「동무들, 우리 기운을 내서 보이러친구들에게 석탄을 특별 특별 보내주세요.」

그의 익살적인 호소가 작업장에 웃음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안아왔다. 높아지는 메질소리, 부실부실 부서져나가는 석탄덩이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많은 석탄이 벨트콘베어를 타고 보이러장에 운반되었다.

전력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는 운영부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도 벌어졌다. 급격히 낮아지는 대기는 온, 지속되는 추위로 하여 보이러들의 도반이 얼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다. 청년직장과 2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공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얼이 되고 불같이 되어

강추위와의 전투를 벌여나가며 생산을 중단없이 다그쳤다.

강추위와의 전투는 말 그대로 애국적열정의 분출과정이었다. 어느날 청년직장에서 보이러 발브의 바깥을 교체하여야 할 긴급한 정황이 발생하였다.

높은 온도의 물이 흐르는 조건에서 그것의 식기를 기다리자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였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물온도가 낮은 곳의 도판들이 얼어들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보수부직장장 김영철, 보수 1작업반 반장 오동철, 공정원 김장명동무들이 달려왔다. 어려운 속에서 그들은 발브를 교체하고 바깥을 갈아대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은 나라가 우리 북창의 로동제급을 지켜보고있다. 우리가 보수시간을 순간이나마 지체한다면 조국의 전진속도가 그만큼 더져가게 된다. 이런 자각을 안고 이들은 짧은 시간동안에 이러한 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애국충정의 열도를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있는 미더운 전력생산자들이 있어 북창의 승결은 더욱 높여지고있다.

전력생산성과 계속 확대

평양 화력 발전 연합 기업소에서

평양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이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한 로적성과를 안고 들어가기 위해 전력중산로보장사업을 책임지고 연관단위들에 달려나가 그곳 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함께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였으며 직장별,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운영효과를 높이는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열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훈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열생산단위의 일군들은 교대별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로동자들이 보이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영하도록 요구를 높이고있다.

열생산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제급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도 높고 증기생산실적을 부쩍 올려 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난 기간 보이러들의 연소효율과 화실보온계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인 이곳 로동제급은 1월과 2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보이러가동대수와 증기생산실적을 근 1.3배로 끌어올리

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그 기세로 직장별의 로동제급은 이달에도 설비관리를 짜고들면서 보이러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라빈직장과 전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발전설비들의 효율을 더욱 높이고있다.

운전직장의 로동제급은 하차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벨트콘베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탄부하로 철도수송전사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석탄이 보이러들에 제때에 공급되도록 하고있다.

지난해 150일 전투와 100일전투기간 발전기들의 대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전력중산에 기여한 보수부분의 로동제급도 계획된 설비보수와 관련한 수리과제들을 제때에 기동성있게 수행하고있다.

자력갱생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보수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모든 직장과 일터마다에서 뜻깊은 10월의 축전장에 자랑한 로적성과를 안고 들어서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속에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동평양화력발전소 열생산직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들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동평양화력발전소 열생산직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공동구호의 전투적소를 높이 받들고 헌신적인 창조해가고있는 직장 로동자들의 열풍이 뜨겁게 불어나고있다.

오늘도 자랑한 전력중산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드센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직장 로동제급의 애국충정의 열도를 보여주듯 조작반들의 각종 계기와 화면들에 보이러들의 운영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우리가 여러 수자들이 현시된 어느 한 화면으로 눈길을 모으는데 직장장 심상철동무가 지난해 150일 전투기간에 2호보이러에 받아들인 콤퓨터지체체계라고 알려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개발하여 현장에

점진적발전의 열풍이 불다

도입한 이 체계가 지금 보이러운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데서 크게 눈을 내리고있는 것이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지령장에 놓인 전화기들에서 종소리야 연방 울린다. 「보이러운영에서 이상없음.」 「미루전동기상태 좋다.」

수화기를 잡고 울려나오는 운전공들의 절고보고가 우리의 귀에도 들려온다. 현장실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교대장 최승동무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어린다.

이런 교대에도 보이러들을 정상운영하여 높은 증기생산실적을 기록한것이다. 만가동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애국 직장장은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모든 보이러들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침착을 돌파할데 대한 공동사업의 전투적업무를 기어이 관철하겠습니다.」

본사기자 강명천

설비관리를 관지계 청진 화력 발전소에서

청진 화력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전설비들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생산자재들을 설비관리사업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하고있고있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힘을 합쳐 설비점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부분 로동자들을 발동하여 예비기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워나가고있다.

라빈직장의 일군들과 기계공들이 높은 책임성을 안고 분발하고있다. 직장에서는 기계들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다루면서 잘 관리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적극 일반화해나가고있다. 2호라빈의 조작공들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설비관리로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나가고있다. 보이러직장, 전기직장의 로동자들도 이달에 설비관리에서 한계단 비약을 일으킬 결심 밑에 떨쳐나서고있다. 보이러

직장 3호보이러의 운전공들은 보이러의 정상가동이자 전력중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순회점검, 업간점검을 견지해 해나가고있다. 전기직장의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운영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최근에도 직장에서는 현실조건에 맞게 조상기운을 과학기술적으로 잘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었습니다.」

무릇 사람들은 「정반산」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외적을 물리친 선조들의 슬기를 전하는 역사유적들, 인민의 유년지로서의 모습에 대하여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선진시대에 현대적인 고기, 양생산지들이 정

기행

방산기술에 어떻게 밀려서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다는 모를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펼쳐진 자랑한 현실을 전하기 위하여 정반산 기술에 일어난 황해북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을 찾아 기행의 길을 이어갔다.

새 력사

이렇게 주신 아버지수령님, 닭공장건설이 한창이던 이듬해 봄 공장을 찾으면서 주변경치가 마치 해금강을 방불케 한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잡아주시던 사리원닭공장의 위치가 명실장리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에하는 장군님.

인민을 위해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실험과 로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하였다.

우리와 만난 초급당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닭공장건설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개진되었을 때에는 공장을 찾아주시어 자기들의 로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닭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우람물종의 종자양을 보장해주는 체계까지 세워주시었다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크나큰 은정을 노래하는 《축산촌》

황해북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을 돌아보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비옥 2호동이었다. 호동안에 많은 양의 효소제, 첨가제, 단백질, 예방약 등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며 공장기사는 작은 먹이로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는데 큰 공을 하는 실리가 나는 공장인 《공창》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가금업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실현의 열풍을 밝혀주시고도 공장을 찾으면서서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인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고 높이 치하해주신 우리 장군님.

그 력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우리는 고기가공장으로 향하였다. 만부하의 동음이 들려오는 고기가공장에서 세척, 털뽑기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살린 닭들이 가공되어나오고있다.

《몸소 가공업모습을 보아주시며 하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정경합니다.》

공장 일군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닭고기와 닭알을 공급받고 좋아하니 기쁘다고,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모두가 경에하는 목이 메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장일군

들라 종업원들이 1월에 이어 2월에 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높여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

과학화, 집약화의 위력을 떨치며

우리는 사리원닭공장으로 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리원체적공장을 찾았다. 구내도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공장일군으로부터 몇해전 겨울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찾으신다고 축산물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는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공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수첩을 펼쳐보였다.

과학적인 종축생산체계와 경영체계의 확립, 먹이참고와 먹이조건, 첨가제생산기지, 고기가공장을 새로 건설, 골로를 파서 물문제를 해결... 이 놀라운 성과는 당장 65톤을 맞는 올해에 대비약을 일으켜서는 이들의 불길의 정진력, 파감한 공격정신이 남은 자랑한 현실이다.

흥분된 마음을 안고 먼저 새끼양이호응에 들린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컸다. 황소같이 큰 어미돼지들이 짝 들어한 돼지우리, 쪽 늘어져 잠든 어미돼지마더에 벌을 지은듯 서로 등

세차게 떠오르는 증산투쟁의 불길

순천 화력 발전소에서

당장 65톤을 넘는 올해를 강대국건설에 특기할 대면적의 해로 벌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순천 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대고조전속도창조의 불길도 높이 생산성과를 무던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정초부터 드센 공격전으로 첫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한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그 기세, 그 기쁨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또 다시 2월 전력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향하여 계속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어있는 경제정책체제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상을 일으켜야 합니다.」

발전소당 직장에서 4대 선행부분이 대고조의 진군속

도를 최대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가 될것을 바라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로동제급의 양양된 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데 모를 막고 화신정기치사업을 타격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지난해와 올해 전력생산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관성있게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인민경제의 지휘관처럼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적하며 전력중산을 위한 전투지휘를 결연하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이들은 발전설비의 대량 출력을 최대한 높이며 설비가동시간을 늘이는데 모를 막고 전력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대증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강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보이러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면서 증기생산량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에 맞게 열조종실에서는

보이러의 운영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내놓아 양양된 대고조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발전소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속에는 라빈직장과 운전직장, 하차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깰어 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하차직장과 운전직장에서는 석탄부설기와 벨트콘베어를 비롯한 설비들의 불량개소를 제때에 바로잡아나감으로써 석탄이 들어오는속도 제때에 부러워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라빈직장의 조작공, 운전공들도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자조절 및 정공제통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면서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아글라를 애쓰고있다.

오늘도 발전소의 모든 전력생산자들은 강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전력중산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리며 총공정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정경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축산물생산을 늘인다. -사리원닭공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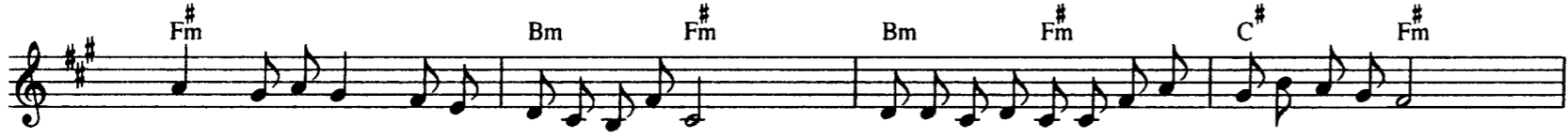
당 은 장 군 님 의 품

작사 윤두근
작곡 황진영

경축적으로 (♩ = 125)



1. 그 품에안 기면 어머니같고 그손잡으면 아버지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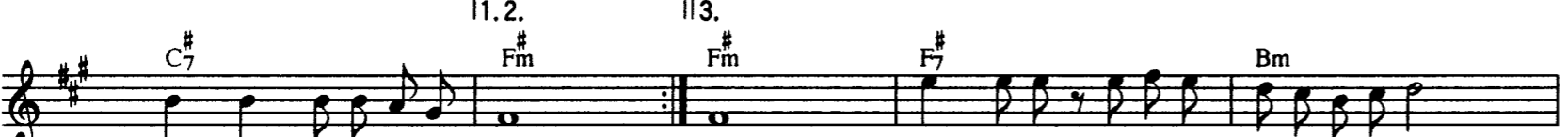
이 땅에태 여난 내삶의숨결 이어놓은그심장이 우리당이야



당 은 내나서 안겨사는집 당 은 내희망 펼치는대지



당 은 내운명 빛내여주는 영 원한푸른저하 늘



당 은 장군님의 품 팔 팔팔 팔팔라 노래부르자



팔 팔팔 팔팔라 우리의당을 팔 팔팔 팔팔라 노래부르자



당 은 장군님의 품

2. 그 뜻은 예지의 해빛이런가
그 정 사랑의 봄빛이런가
주체의 빛발로 내 삶의 앞길
비쳐주는 그 등대가 우리 당이야
(후렴)

3. 그 위업 받들면 영광넘치고
그 품 따르면 승리만 있네
선군의 길에서 내 삶의 행복
꽃피우는 그 태양이 우리 당이야
(후렴)

팔팔팔 팔팔라 노래부르자
팔팔팔 팔팔라 우리의 당을
팔팔팔 팔팔라 노래부르자
당 은 장군님의 품

옥류관과 더불어 전해지는 은혜로운 사랑의 이야기

풍치아름다운 모란봉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맑은 물에 발부리를 잠근 옥류바위우에 우뚝 솟아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옥류관.
예로부터 유명한 민족음식인 평양랭면과 평반국수로 소문이 났던 대중봉사지가 오늘도 여려가지 명료봉사사로 그 이름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옥류관에 나날이 늘어난 가는 자랑, 내 조국의 맑은 하늘가로 더 밝게, 더 높이 울려 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정녕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가.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해결 같은 지지는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메추리 요리, 자라 요리, 철갑상어 요리, 연어 요리... 눈맛도 제일, 입맛도 제일 인 최귀한 요리들이 인민들을 기다리며 식탁가득 차려져있다.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안락이 절개로 꾸러진 옥류관의 여러 식사실들에서 진귀한 요리들이 차려진 음식상을 마주한 인민들은 기쁨에 앞서 뜨거운 목이 짝 메인다.

“어서 드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자라 요리입니다.”
“이 철갑상어 요리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옥류관에서 봉사하도록 해주신것입니다.”
가지가지의 고급 요리에 깃든 어머니장군님의 온정을 전해주는 봉사일꾼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추억의 물결이 파도 쳐온다.
평양랭면과 고기평반국수를 비롯하여 맛있는 국수봉사로 이름높은 옥류관에서 여려가지 명료봉사를 봉사하도록 해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메추리 해물찌는 철갑상어들이며 자라와 메추리들을 보실 때마다 그 모든것을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싶으시어 마치 마음쓰시는 어머니장군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의 영예를 떨쳐 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해 주고 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옥류관을 종합적인 명료봉사기지로 꾸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해나가시느라 1분 1초도 아껴가시며 로고를 바쳐가시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의 두달기간에만도 옥류관의 명료봉사와 관련하여 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옥류관에서 국수만이 아니라 여려가지 요리들도 잘 만들어 보라고 가르쳐주시며 그에 맞게 요리사들의 기술능수준을 부쩍 높여주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옥류관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룩해주신 식당인것만큼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요리는 다 해야 한다고, 국수만이 아니라 명료봉사로도 잘해서 크게 소문을 내야 한다고 옥류관에 요리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따로 내오도록 여러차례에 걸쳐 온정어린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었다.
옥류관에서 진귀한 요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봉사할수 있도록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원자재보장으로부터 그 수송과 보관, 요리방법과 봉사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심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자라요리를 할 때는 꼭 산 자라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 운반대책까지 가르쳐주시고 옥류관의 요리사들이 그 어떤 진귀한 요리들도 다 훌륭히 만들수 있게 준비되었다는것을 아시고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명료봉사기지도게 접대원들의 옷차림도 새롭게 하도록 마음써주신 어머니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지난해에는 평양랭면과 고기평반국수와 함께 메추리 요리봉사가 새로 시작된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는 최귀한 자라요리와 철갑상어 요리, 연어 요리가 새로 식탁에 올라 손님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우리들이 누려가는 행복의 갈피갈피에 이처럼 다심하고 뜨거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진하게 스며들어있음을,
그 행복이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멀고 험한 전진길, 현저도길에서 꽃피는것에 그 사랑, 그 행복을 받아안은 가슴가슴에서는 보답의 맹세도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어머니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여려가지 명료봉사를 봉사받고 교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남긴 인민들의 글을 그대로 전한다.
“예로부터 신하는 일하고 임금은 윈다고 하여 <신로군일>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 로동당시대에는 인민들이 앉아서 임금처럼 호식을 하고 나라와 만백성의 운명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의 이 행복을 위하여 멀고먼 현저도지의 길만 이어가시니 가슴속에 가득차오르는 이 감사의 정을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특정한 계층이나 맛보며 향유할 고급요리들이 우리 로동계급에게 제일먼저 차례지는 이런 현실은 오직 우리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희한한 현실입니다.”
“나날이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매여 수저를 들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랑, 이 온정을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높은 사업성파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날이 커만 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찬란한 하나의 보답하려는 옥류관 일꾼들과 봉사자들의 심장도 뜨겁게 불타고있다.”
“어머니장군님의 사랑과 온정으로 짝 차있는 옥류관이 꼭 세계적인 명료봉사기지로 되게 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열정을 장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요리사들의 전진이 우리의 가슴을 쩍 열려주었다.
어머니사랑으로 가득찬 봉사전당,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피는 내 조국의 자랑 옥류관!
뜻깊은 올해에 창립 50돛을 맞이하게 되는 옥류관은 세상에 소문을 내는 명료봉사기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봉사기지로 더욱 이름떨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윤지혜



전반적으로... 평양명료봉사기지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촬영

출근길에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아침 출근길은 얼마 지나지않아 마을도 길음도 가벼운 출근길이다.
늘 오가는 정든 거리, 늘 들려오는 방충선전차의 노래소리... 활기에 넘쳐 걸음을 다그치는 청춘남녀들, 발걸음마다에 사색을 걸으며 출근길에서도 탐구를 멈추지 않는 나이이숙한 과학자의 모습... 모두가 아침출근길에서 낮은 정든 모습들이다.
《안녕하십니까?》 문득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우리는 인사 인사를 위해 알아보았다. 대동강구역 동문1동에서 사는 김숙경동무였다.
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한식술같이 다정한 모습이 말입니다. 그리고보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식이 아니라 서로 다정히 레철있는 인사말을 나누며 머리를 숙여보는 우리 식의 인사레철이 제일입니다.》
정말 그랬다. 동방레의지국으로 자랑높은 내 조국땅에 넘치는 우리 식의 인사법,
인사를 한번 해도 우리 식으로 고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풍모가 우리의 거리를 더욱 밝게 해주고있었다.
본사기자

서세형 이란주께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월 24일 호세인 카세피 이란정당들의 집 중앙리사회 위원장을 작별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이란정당들의 집 중앙리사회 위원장을 작별방문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반미투쟁과 조국통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려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며 세련되고 로숙한

이란인민과 조선인민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미국 등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다.
앞으로도 이란정당들의 집과 조선로동당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소뽕생일 200돛에 즈음한 뽕스까 영화감상회 진행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뽕스까의 이름있는 음악가 소뽕의 생일 200돛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3일 대동

반통일역적의 본심을 드러낸 망발

지난 2일 남조선 《통일부》장관 현인택이 《통일부》조작 41년과 관련하여 그 무슨 《기념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반통일대결부》로 악명떨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통일부》의 조작을 《기념》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노릇이지만 역도 거기에서 내뿜는 수작은 뒤어찌 분노를 자극한다. 한마디로 쥐어짜면 그것은 자유한 반통일역적의 과범치한 대결책동합리화회색의 동시에 북남관계를 영영 절단내교야말려는 로폭적인 사표시이다.

《연설》에서 현인택은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본래대로 돌려놓는것》이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지금 남북관계가 전진하고있다.》느니, 지난 2년간 저들이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왔다.》느니 하고 뽐낼수설하였다. 역도는 북남관계에 핵문제를 또다시 거들면서 《핵문제의 문턱》을 넘어 그 무슨 《협력》으로 나아가는것이 《통일부》가 부여받은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는 황당한 넋두리도 늘어놓았다.

동족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국도의 대결야망에 사로잡힌 현인택이 지금껏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파란을 피어왔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하지만 그 드러낸 본심이 어떤처럼 명확하 드러난것은 없었다. 역도의 망발은 6. 15 통일시대의 북남관계를 전면부정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를 완전복구하려는 보수페당의 용

납 못할 반민족적용계의 뚜렷한 발로이다.

현인택이 이번에도 저들의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본래대로 돌려놓는것》데 《본래대로》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북남관계가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발전해왔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당풍으로 북남관계가 여기에서 탈선한 상태에 있는 지금 그들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존중하고 그 리행의 길에 나서야 북남관계는 비로소 화해와 협력의 본래대로 올려설수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문제는 공동선언부정,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선언을 부정하는것은 곧 북남관계에 대한 부정이며 통일부정이다. 지금도 피피당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여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그에 입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개성공급지구화협상과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제개를 위한 실무접촉들을 결렬상태에 몰아넣은것은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역도 《남북관계가 전진》하고있고 저들이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왔다.》고 허튼 나발을 불어냈으니 이자야말로 첩첩피해하기 이를데 없는자이다. 문건대 파국에 처한 지금의 북남관계가 과연 정상인가. 이쯤되고 보면 현인택일당이 바라는 《남북관계의 본래대로》라는것이 무엇인가는 총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것은 다른아닌 대화와 협력 없는 완전한 격계, 파국상태의 북남관계인것이다.

현인택이 핵문제를 거들며 떠벌인 그 무슨 《시대정신과 실천과제》라는데 대해서도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루차 천명하와 같이 핵문제는 북남관계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산생된 핵문제를 민족문제인 북남관계와 억지로 결부시키는것은 사실상 핵문제를 해결하지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하면서 외세의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려 거이여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장술책이다. 현인택역도가 이런것을 놓고 《시대정신》이니, 《실천과제》니 하고 떠벌인것을 보면 보수페당의 음모태도를 가히 알수 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6. 15

통일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되고있는 오늘 그에 전면배치되는 사대매국, 동족대결을 감히 《시대정신》이라고 고난대는 현인택역도에게는 끄를만한 민족적자존심도, 한조각의 동족관념도 없었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이자가 북남관계에서 《원칙고수》를 운운하며 쫓겨들게 《초초해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한것이다. 이것은 반역페당이 지금껏 그 무슨 《기다리는 전략》, 《우보전략》을 운운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체계적으로 파탄시켜온 저들의 반통일행위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북남관계개선을 2년이나 지체시키기도 부족해서 아직도 《원칙》나발을 불어대며 《서두르지 말라.》고 선동하는 현인택이야말로 통일과 철저히 담을 쌓은 극악한 반통일역적이 분명하다.

6. 15 통일시대의 흐름에 도전하여 저들의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더욱 악랄하게 강행할 흉심을 품고있는 현인택과 같은 반통일역적들이 살판치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남관계의 길을 타고앉아 대결을 고취하며 미친듯이 달려는 현인택을 비롯한 시대의 동물들은 하루빨리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는것이 상책이다.

최철순

선군정치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준다

재도이힐란드동포협력회 명예회장이 글 발표

장일중 재도이힐란드동포협력회 명예회장이 지난 2월 11일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준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기치말에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에 벌써 선군명장이 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데 대해 글은 격찬하였다.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룩하신 21세기 선군명장이시라고 평하였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천리해인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제국

주의반동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 반통일광풍을 제압하고 조국통일의 천천천적극을 열어놓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6. 15 북남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반세기이상 지속되던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에 총지를 찍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열어준 새 세계 민족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선군정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리행을 힘있게 추동하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6. 15 통일시대를 힘있게 떠밀어왔다.

김정일장군님의 끊임없는 선군정치으로 이복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으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초강경고압자세로 제압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생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선군정치는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협력, 통일의 문을 활짝 열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공조만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진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우리 민족끼리》의 활력이 넘쳐나고있는것은 위대한 선군정치가 안아온 자랑한 화폭이다.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존을 지켜주는 평화의 보검이다.

선군정치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각계 대중은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것이 자기 자신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선군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야 한다.

온 겨레는 선군의 기치말에 조국해방 65돐, 6. 15 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김정일장군님의 백전백승의 선군정치가 있어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도교대공습에 의한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제토론회 진행

미군에 의한 도교대공습이 있는 때로부터 6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제토론회가 2월 27 일 도교조선인강제련행진조사단(도교조사단)의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도교조사단 성원들과 연구자들, 일본정계인사들과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일본민중당 중의원의원 하쓰시카 야키히로가 발언하였다.

그는 도교대공습으로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들의 실태를 일본정부가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하고 하면서 앞으로 일조관계를 발전시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리일만 도교조사단 조

선인숙 사무국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3월 미군의 도교대공습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본정부의 과거 청산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고 하면서 도교조사단의 활동정형과 유골의 존재가 발견된 경위, 강제련행이 감행된 당시의 형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조선인희생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유골문제와 관련한 진상을 밝히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에서 보면 《유골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

한 보고에 이어 일본 이바라기 대학 명예교수 아라이 신이치, 남조선에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과장 정혜경이 발언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호소문은 도교대공습에서 1만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당시 강제련행당국을 저지른 기업들이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 응당히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한일합병조약》조각 100년이 되는 올해 진보적단체들과의 연대와 뉴대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도록 호소문은 강조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추모회가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극도에 이른 북침야망의 발로

지금 남조선 보수페거리들이 그 무슨 《6. 25 전쟁기념》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올해 11월까지 남조선에서는 지난 25년 전쟁을 《기념》하는 각종 반공화국행사가 대규모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남조선당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 현직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6. 25 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14개 부, 처의 국장들이 참가하는 《실무위원회》, 7개의 편위원회 실무자들을 망라하는 《추진기획단》까지 조직하고 분주함을 피워왔다.

남조선당국이 벌려려 하는 판데놀이음에는 인선상륙작전을 비롯한 《주요전투》들의 재현,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그 추종국가고용병들에 대한 《위로연》, 《참전군속회공연》 등 별의별것들이 다 들어있다. 시대에대응성에 꼭 짚어있는 쓸개빠진 보수페당은 심지어 그 무슨 《참전국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 월미도지역의 수만부처에 거역의 자금을 들여 《인선상륙작전 기념공원》과 《기념비》까지 건설하려 하고있다.

력대적으로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각종 반공화국행사가 연출되곤 하였지만 그것이 이번처럼 대규모적으로 벌어지려는 일제적이었다.

판데국의 막은 이미 울렸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참전국》주체 대사들을 불러들여 《6. 25 전쟁 기념사업 설명회》라는것까지 벌여놓고 해당 나라 정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전쟁열에 떠들썩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이번 《기념》들 속에서 주역을 놀리고있다.

남조선각지의 《옛 격전지》들에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당시의 전투상황을 가감한 대규모군사연습이 감행되고있다.

2월 3일 남조선군 3군단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최대격전지중의 하나》라고 하는 남조선강원도 최전방 양구지역에서 도발적인 협동훈련을 벌려놓았다.

포실탄사격과 강행도하로 이어진 이 훈련에는 3군단편하의 모든 부대들과 1군사령부 부속한 기관차와 항공대과 총동원되어 화약대를 풍기며 땅기를 부리었다. 심지어 남조선군부는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로장》을 자위대에 끌어들이

어 조선전쟁시기의 한 주요전투와 관련한 그 무슨 《기념관》을 참관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까지 안내하며 호전적광기를 드러냈다.

지난 조선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양기에 알삼하기 위해 미제가 리승만 《정권》을 사숙하여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 국제법과 인륜도리를 관측하게 짓밟는 전쟁력사에 일제기 있어본적 없는 가장 야만적인 살육전쟁이었다. 수백만 우리 겨레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혹한 전쟁은 온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기었다.

력사는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전쟁참화를 몰아대고있으니 얼마나 가슴쓰럽고 격분할 망동인가. 이것은 력사와 진실을 완전히 동원되어 화약대를 풍기며 땅기를 부리었다. 심지어 남조선군부는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로장》을 자위대에 끌어들이

정쟁도발책동을 배경으로 요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6. 25 전쟁기념》 놀음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한 북남관계를 전면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으로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위험천만한 책동이 수수방관할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6. 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대결과 전쟁을 필요하게 추구하는 역적페당은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정상화를 결대로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없었다.

범죄적인 침략의 력사를 외곡하고 겨레의 피로 두눈이 얼룩진 살인마들과 그 후예들이 거 끌어들이 《위로》니, 《감사》니 하면서 《기념》놀음을 요란스럽게 벌려려 하는 보수페당의 책동은 지금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대결의 길로 서슴없이 나아가는 반역무리들에게 차폐될것이란 오직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력사와 진실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어리석은 대결판데국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허영민

나라들의 주민들이 매우 많다. 가장 힘든것은 자기 조국에서 사는것이다.

알바니아의 한 청년의 이 말에서 사람들은 조국과 삶, 사회주의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될것이다.

바르다와 홍남의 쌍둥이 처녀들.

알밤을 기약할수 없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 피눈물을 쏟고있는 동유럽의 자본주의나라녀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락판에 넘쳐 행부의 노래를 부르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녀성.

극적대조를 이루는 그 두 모습은 사회제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하고도 생생한 대담으로서 된다.

사회주의제도만이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울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희망도 가질수 없다는것을 판이한 그 두 모습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똑바로 알고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여 왔다. 썩어빠진 부르주아사상과 부르주아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선전에 철매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본주의에 대한 추호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취가 쏠린 사회주의를 품고고 나중엔 인민의 계도가 무너진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을이다.

오늘 수난과 악몽에 시달리고있는 바르다와 같은 이진 사회주의나라 청년들의 운명은 그것을 다시금 경고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전쟁연습책동의 중지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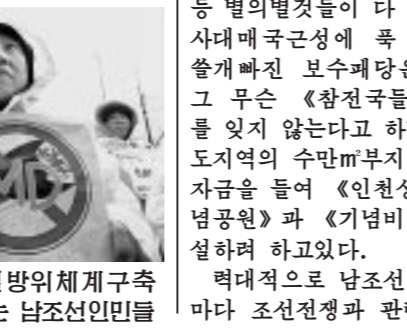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대회를 비롯한 평화통일운동단체들이 2월 26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를 위한 250차 금요일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3월 8일부러 북침전쟁파조훈련인

《키 리츨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려 하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씨를 몰아올 북침합동군사연습책동을 즉시 중지하고 평화형제결계적 국 내실정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사회주의는 인민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도가 실려있다.

《지금 알바니아에서는 어린이의 30~40%가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에 걸려있는것과있으나 아무런 의료적방조도 받지 못하고있다. 최근에 여러나라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병원들이 창문들이 파괴되고 오물들이 쌓인 방들에 누운 침대와 파괴된 의료기구들이 나뒹굴고있다고 한다. 일부 운영되고있다고 하는 병원들에서도 약품이 부족한다는 물문이고 의로시설과 비품들이 계속 도난당하고있으며 먹는물마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이 나라의 출판물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최근에 경찰들이 의사를 대신하여 병원을 지키고 치료를 봐주었다고 불리는 병사들과 싸움을 벌이고있으며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까지도 병원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매달려 약품을 구걸하고있다고 한다. 하기에 여러나라의 병원들을 돌아본 외국자들은 《병든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녀성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은 사람들을 전복케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바르다는 바로 사회주의의라는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알바니아의 그런 수난자들의 한사람이다. 그의 인간담탄 생활은 자본주의부귀와 더불어 끝장나게 되었다.

생활난에 허덕이던 그는 외국에 가련 잘 살게 해준다는 거짓약속에 속아 서방나라로 갔다. 그만이 아니라 많은 알바니아사람들이 것처럼 서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갔다.

외국신문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전하였다.

《알바니아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 많은 남자들이 나 자신, 어린이들이 매춘부와 강제노동자, 거지로 해외에 류출되었다. 이들은 이 나라에서 사람들을 빼기 위하여 인선 매매중재로서 이 나라에서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로 조금 좀 줄해지지는 못 하면 인선매매가 다시 부활되어 상상이 특박적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인선매매현상이 더욱 늘어나게 하고 있다.

발칸반도의 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가난한 나라인 알바니아는 나토에 가입하였으며 유럽동맹에도 들어가고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라의 형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있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알바니아 인민이 수십년간 누리었던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행복한 생활은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혁명의 귀중한 전취물이었다.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받아온 알바니아인민은 인민정권수립후 마침내 새 생활창조에 나서게 되었고 그들은 현신적인 투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민족경제와 민

업창간 거짓말이었다. 알바니아도 있었지만 법대로 하면 나는 위 조문건을 가진 창녀였다.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파면 그가 어디로 갈수 있었던 말인가.

그에게는 삶의 인식치가 필요하나 그가 태어난 땅도, 번쩍거리는 서방도 그것을 처녀에게 선사할수 없었다. 1946년부터 1985년까지만 하여도 45만명의 알바니아 청년들이 나라의 철도, 도로 등 많은 전국적인 대규모건설대상에서 의무로동을 하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영예로운 일로, 청춘의 자랑으로 간주하였다.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자본주의의바람이 훑어오자 조국의 땅이 피폐해져들 버려져로 위급하지 않아야 하였는데 이것은 이러한것이 우리 알바니아에는 없다. 나는 지금 자기 조국 알바니아에 있지만 인련유린은 계속되고있다.》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제도가 있고야 우리가 바로 내 나라라고 멋멋이 말할수 있는 참다운 조국,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도 없는 법이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복귀된 알바니아에서는 매해 수천명의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이웃나라로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팔려가 성적취취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유엔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성노예생활과 강제착취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는 1230여만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의 주민들이 매우 많다. 가장 힘든것은 자기 조국에서 사는것이다.

알바니아의 한 청년의 이 말에서 사람들은 조국과 삶, 사회주의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될것이다.

바르다와 홍남의 쌍둥이 처녀들.

알밤을 기약할수 없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 피눈물을 쏟고있는 동유럽의 자본주의나라녀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락판에 넘쳐 행부의 노래를 부르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녀성.

극적대조를 이루는 그 두 모습은 사회제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하고도 생생한 대담으로서 된다.

사회주의제도만이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울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희망도 가질수 없다는것을 판이한 그 두 모습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똑바로 알고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여 왔다. 썩어빠진 부르주아사상과 부르주아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선전에 철매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본주의에 대한 추호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취가 쏠린 사회주의를 품고고 나중엔 인민의 계도가 무너진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을이다.

오늘 수난과 악몽에 시달리고있는 바르다와 같은 이진 사회주의나라 청년들의 운명은 그것을 다시금 경고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

로씨야신문 《빠트리오트》 제 5 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민족의 울바른 길》이라는 제목의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있다.

신문은 《2월 16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인민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쏘련과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

조선인민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다. 미국은 1950년-1953년 조선전쟁에서 당한 대참패를 안락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암살하려는 심산전에 조선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파과히 물리치고 세계사적의를 가져오는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

신문은 그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은 가장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혁명론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은 20세기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과학적인 혁명론이 결여되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주체사상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어떤 력사의 도전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선택한 길로 뜻있게 나아갈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군대, 국가에 대한 비범한 령도 예술과 인민적사업작품을 지니시고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였다. 그의 사상리론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신문은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현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가혹한 제재와 한치의 인민적사업작품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믿을만한 성수로 남아있다.

사회주의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에 선군으로 대답해나섰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며 전체 인민을 강력한 령도로 묶어주는 무기이다. 선군정치가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선적사업작품의 위업을 승리로 명도하고계시는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위원을 위임받으시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행정부는 그 무슨 《핵문제》를 걸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급행동을 최악의 사태로 몰아갔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전군,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공포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의 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리용하여 남조선에 《침략》하려는 당치 않은 구실을 항시적으로 내걸고 북조선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판자는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리용하여 남조선에 《침략》하려는 당치 않은 구실을 항시적으로 내걸고 북조선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은 기여한 생활이 수호하고 더 많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말살하려고 저들의 《가치판》과 개인주의를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 책동하는것은 결국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진전하는 것은 조선적사업작품의 위업을 승리로 명도하고계시는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위원을 위임받으시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장에는 사회의 전위부대인 조선인민군이 서있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전체 조선인민의 생활과 로동의 귀감으로 된다.

제 세대들을 영웅적투쟁의 전통으로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잃었던 조국을 찾는 데서 불멸의 공훈을 하였다면 중국 해방전쟁의 영웅들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서 커다란 공훈을 하였다고, 우리 인민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을뿐아니라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은 기여한 생활이 수호하고 더 많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말살하려고 저들의 《가치판》과 개인주의를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 책동하는것은 결국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진전하는 것은 조선적사업작품의 위업을 승리로 명도하고계시는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위원을 위임받으시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시이다.

사람들의 생활의 의미를 빼앗는 행위로 된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이러한 행복은 전인민적인 재부라고 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침략위협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세력이 남아있는 한 선군정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정한 경제체제와 선진적인 과학, 우월한 교육체제를 가지고있으며 가장 주요하게는 당과 군대, 인민이 통일단결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시고 그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시고 그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특별한 정치실력을 지닌 신의세의 위인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우간다신문 《메세지》 2월 12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웅근 한번 특집하였다.

신문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인민군은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랑되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 1월 30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라는 표제 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웅근 한번 특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력갱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이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오늘 조선은 경제강국건설에로 내닫고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외부환경이 극히 어려운 때에 조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경제강국이라는 야심만만한 목표를 실현하려는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은 조선인민의 고유한 투쟁방식의 하나이다.

자력갱생으로 조선은 지금까지 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표제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불굴의 정신력을 총괄발시켜나가는 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이 발양되고있다.

나이지리아신문 《뉴 나이지리언》 2월 9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의 특징과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는 넓은 도량에 대하여 칭송하는 글들을 주체사상탐사선과 함께 편집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에서 2월 2일 불특정 《김정일명도자의 담력》을 발행하였다.

블레젠은 글에서 조선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 총애는 대포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선의 드립업는 자적이고 립장이라고 지적하였다.

블레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난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발사후 제2차 지하핵시험을 결코 반공화국책동을 약탈하게 벌일대대하여서와 그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단호한 립장을 취한대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대국들의 오만한 전횡에 당당히 맞서나가는 조선의 모습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블라온은 김정일명도자께서 조선반도에 새롭게 조성된 첨예한 긴장상태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서 모든 사업을 여유있게 밀고나간것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속포외회 《강성대국의 불로초》를 판매했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속포외회 《강성대국의 불로초》를 판매했다.

《승승장구하는 조선, 명백한 사실자료들》

수리아에서 기념도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도서 《승승장구하는 조선, 명백한 사실자료들》이 수리아 합에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출판사장은 축하말씀을 하며 축하를 전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출판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필자는 머리글에서 여러차례의 방공파정에 조선이아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인민의 나라,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우루과이대통령 호세 알베르토 프루타다노가 1일 워싱턴에서 새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에네르기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진행성있게

실현해나감에 민공정산과 인민들의 불리조건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남아메리카지역의 일체 화과정을 추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나라이 안전을 보장할것을 호소

캄보디아수상 손 센이 2월 25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안전보장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 알파이변장에서 위대한 조국전쟁기념비들을 수복

로씨야의 알파이변장에서 전승 65돐을 맞으며 위대한 조국전쟁기념비들이 모두 수복되었다.

여기에는 약 1000개의 조각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념비수복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었다.

2월 25일 알파이변장 문화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기념비수복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었다.

기념비수복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었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하늘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제 따라 아이에에 파견된 약 1440명의 무바의사들은 지난 1개월동안에 9만 5000여명의 부상자들을

치료하였다. 그중 외과수술을 받은 사람은 45000명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아이에에 더 많은 보건전문가들을 보낼것을 계획하고있다.

정부는 아이에에 더 많은 보건전문가들을 보낼것을 계획하고있다.

정부는 아이에에 더 많은 보건전문가들을 보낼것을 계획하고있다.

도미니카에서

도미니카에서 지난해 경제가 3.5% 성장하였다.

2월 27일 이 나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혔다.

도미니카에서 지난해 경제가 3.5% 성장하였다.

2월 27일 이 나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혔다.

도미니카에서 지난해 경제가 3.5% 성장하였다.

2월 27일 이 나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

▲요르단강 아브라함호 2세가 2월 28일 자기 나라를 방문한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와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행위로부터 이슬람교의 성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것을 국제공중계에 호소하였다.

한편 요르단의 사회활동가들이 2월 27일 밤중에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위에 항의하여 통상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최근 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에집트국회가 2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이슬람교문화유산책동을 규탄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

최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타인유산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반시키는 도발행위로 판정하였다.